

2018학년도 제4회 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 의 록

부위원장

학교장

일시 : 2018년 11월 20일(화요일) 11:00~

장소 : 옥산초등학교 교무실

회순(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6. 안건심의
7. 기타사항 협의
8. 폐회

상정안건(부의된 안건)

1.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3.1.자 교장공모제 추진 심의 (안)

간사(송**) 지금부터 2018학년도 제4회 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경례(이하생략)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이**)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 2월말 퇴직으로, 2019.3.1.자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 심의 안이 발의 되어 공모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송**) 다음은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허**) 오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간사(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학년도 제4회 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의 보고가 있습니다.
부위원장(허**)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임시회에서 검정 교과용도서(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선정(안)외 1건의 심의안건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적정운영 되었습니다. 이번 2018학년도 제4회 임시회에서는 2019.3.1.자 교장공모제 추진 심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11월 12일 운영위원회 개최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	의사일정 제1안 제4회 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부의된 2019.3.1.자 교장공모제 추진 심의(안)의 심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11월 20일 하루로 하자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의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허**)	모두“이의 없습니다”
교감(최**)	의사일정 제1안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2019.3.1.자 교장공모제 추진 심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 20일 안내장 교부 후, 22일 회수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순 없지만 이 안에 응답결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장공모제 학부모 의견 조사결과, 학생수 73명, 51세대중 43세대가 응답을 해주셨고, 무응답은 8세대입니다. 교장공모제 찬성은 38세대 88.37%, 반대는 5세대 11.63%입니다. 세대수가 아닌 응답수입니다. 교직원 의견 조사결과, 교직원 18명중 응답자는 16명이며, 나머지 2명은 기간제교사로 도교육청 문의결과, 정식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응답처리 하도록 되었습니다. 교장공모제 찬성은 1명 6.25%, 반대는 15명 93.75%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학교는 찬성과 반대가 나뉘져 있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에 문의결과, 의견을 균등하게 조사하라고 합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대부분 학부모의 찬성과 대부분 교직원의 반대의견에 대해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 하는 자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지만, 공모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안하는 거고, 지정해달라고 해도 찬성 반대결정이 나왔는지 심사 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교장공모제를 찬성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교장공모제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제가 다시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에서 공모제 시행학교는 내흥,당북,월명,개정,서수,성산,회현입니다. 회현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릅니다. 공모제를 찬성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학교로 교장초빙제입니다. 교장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올 수 있습니다. 임기가 4년이지만, 4년미만인 자도 올 수 있는데, 처음 교장이 임용되었을 때 4년이 안되어도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장이 임용이 될 때 4년이 안남은 사람도 공모제에 응시해서 3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회현은 내부형 공모제입니다. 회현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교장자격소지자와 교장 및 교감 자격증 없이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도 해당이 되는 내부

형 공모제입니다.

좋은 결정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전**)

학부모님들이 찬성의견을 낸 이유는 지금도 열정이 있으시지만,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으로 바꿨으면 해서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1년, 2년만 계시다보니 '1년 있으면 떠나는데'라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기간이나 열정으로 좀 더 젊으신 교장선생님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왜 교직원들은 반대의견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반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한**)

저는 교장공모제 추진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 학부모 바라보는 시선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할 때 아이들은 즐거울 수 있지만 행사를 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학년마다의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학년에서 체험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여유로운 생활을 가지고, 초등학교때는 재능소질을 찾아주지 않으면 중·고등학교때 공부해서 성공하라는 거밖에 안됩니다. 학년의 교육과정 중심으로 차분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즐겁겠지만 연계되는 중학교때의 경쟁의 구도로 봤을 때, 도시와 옥산의 학력 차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수업시간의 알찬 교육과정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학이 분수(4차시)과정인데 아직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쪽지시험 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님들은 체험을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체험은 가정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안정적인 학습에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김**)

지금 아니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때 체험을 안 하게 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추억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모든 학부모의 의견은 선생님과 반대의견입니다.

위원(한**)

저는 완전히 아이들이 교과를 100% 이해를 하고 학년을 진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김**)

현재 상황이 선생님과 학부모가 의견을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위원(이**)

제가 공모교장선생님과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열정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저희는 이번 의견수렴때 서로 일체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공모찬성 이유는 제 생각에는 공모를 하게 되면, 방과후도 많아지고,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아져서 수익자가 줄어들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현장학습이 많아져서 아이들 체험이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은 잉여교실이 없고 방과후는 문제인데 답이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는 교육청 근무가 있으신 젊으신 분이 오시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학교들 보게 되면, 하시는게 많으신데 실제로는 안해봤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회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학부모에서 2주전에 아이들이 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장선생님께서 지시하시는데 아이들 수업을 할 수가 없었

	습니다. 1~5.6교시까지 무용 등등 연습을 했는데요. 보여주는 게 있다보니 만족도는 높겠지만, 학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위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재 행사월력을 뽑아봤는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지금도 행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는데 교육적으로 내실이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김**)	저희 작은애가 개정초병설유치원에 1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고 학부모로서 좋을 기억이 있어서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저희 신랑이 건축일을 하는데 교장공모제 학교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열정 있으신데 예산 지원이 안된다. 교직원 단합도 안된다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안하는 학교행사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체휴일이 많으니까 가정에서 현장학습은 하고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학습 가려면 2~3일은 마음이 붕 떠서 관리가 힘듭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교장선생님이 오셔도 한정적인 예산에서는 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전**)	물론 수업이 중요하지만 체험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김**)	저는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의견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허**)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찬성과 교직원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교장공모제의 좋은 점만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당북초 등 주변학교에서 장점만 들으신 거 같은데.
위원(김**)	찬반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학부모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전**)	공모교장선생님이 교직원 의견 무시하고 할 순 없지 않나요?
위원(한**)	네
위원(전**)	저는 절충안 마련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의견도 충분히 알겠지만 한번 해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이**)	만약 열정적인 공모교장선생님이 오시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나요?
위원(한**)	방과후예산은 지원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불가 합니다.
위원(이**)	예산은 신청 할 수 있는데, 매년마다 교부는 안되겠지만 예를 들면, 바른먹거리, 학부모지원사업, 어깨동무, 교과지원, 소프트웨어 등등 다른 학교에 비해 예산은 많습니다.
위원(한**)	방과후예산은 학생수 대비이기 때문에 급당 1,800천원인데 7학급이기 때문에 12,600천원이 교부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주산,한자 다독이고 하는데, 학부모님들 설문을 보면 아이들과 학부모 의견은 다릅니다. 제 개인의견은 행사를 하더라도 내실있는 학부모가 즐겁고 관객이 재미 있는 게 아닌 아이들이 즐거워서 스스로 관객이 되는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김**)	저는 한번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느끼라는 의미입니다.
학교장(이**)	제 친구는 공모교장으로 했다가 일반교장으로 퇴직했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공모는 학부모와 약속이며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바깥활동이 많다보니 학부모님들은 좋아하겠죠.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위원(전**) 혹시 내년에 공모교장의 후보는 있나요?

학교장(이**) 없습니다.
우리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면 전라북도관내, 타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사와 아이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교사가 기분이 안좋으면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게 됩니다. 저는 찬성반대를 떠나 교직원의 의견이 분위기를 생각 하신 거 같습니다. 1년 남으신 분들은 오지말라고 했는데

위원(전**) 학교에 발전적인 분이 오시면 좋을 거 같은데 옥산에 오시는 분이 누구일지 모르니까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학교장(이**) 일반교장과 공모교장 둘 다 모릅니다.

위원(전**) 죄송한데 촉박하게 된 거 같네요

학교장(이**) 공문이 12일에 와서 바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위원(이**) 교장공모제는 잘하시는 분이면 아주 잘하시는데 아니면 정말 힘듭니다.

위원(김**) 공모교장이 아닌 일반교장이 오더라도 문제는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이**) 공모교장이던 일반교장이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원(김**) 어머니들은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찬성을 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공모제 찬성으로 공모 교장이 왔는데 안좋으신 분이 오시면 할말이 없겠지만, 반대로 일반교장이 오시면 찬성했던 학부모님들이 왜 우리의견이 반영 안되었냐고 말이 나올텐데요. 학부모와 교직원의 차이가 많이 있다보니...

부위원장(허**)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위원들 의견없습니다

부위원장(허**)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기명 투표 및 개표 진행 -
- 개표결과: 투표인원 8명중 찬성2표, 반대 6표

부위원장(허**) 무기명투표 결과 옥산초등학교에서는 의사일정 제2안 2019.3.1.자 교장공모제 추진 심의(안)은 교장공모제 추진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학년도 제4회 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허**, 김**, 이**, 전**, 이**, 이**, 한**
박** (8명)

* 기록자 - 간사 송** (서명)